

가구주 연령과 직업에 따른 가계의 적정소비선*

Household's Optimal Consumption by age of reference person and occupation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 사 양 연 선
교 수 임 정 빈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Master : Yang, Yon sun

Prof. : Im, Jeong B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was tried to understand the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 with the family lifecycle stage of urban workers and on the basis of this to pull out the optimal consumption line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long term management of household finance.

As a whole, it is revealed that real consumption both in the period of establishment and reduction is lower than optimal consumption, whereas real consumption in the extension period is far higher than the optimal consumption in the same period. The reason may come from that the educational expenditure of children in the middle age reaches the climax and in addition household in the same time tends to add the marriage costs supporting his children.

◆ key word: 평균소비성향, 적정소비선, 가계소비지출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I. 서론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관한 분석은 미시적으로는 개별가계의 재정적 상황 파악에 필요하며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가계재정의 경향을 알 수 있게 한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은 가족의 내적 요구의 변화발달에 따라 달라지는 한편 외부적인 변화, 즉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개별가계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소비지출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소득액에 따라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겠지만 언제나 총소득과 총소비지출이 정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Friedman의 향상소득가설과 Modigliani의 생애주기 가설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소득이 많을 때 저축을 하고 적립해 두었던 금전을 소득이 적을 때 활용한다. 또한 사람들은 소득이 적어도 주변이나 타인의 소비수준에 따라 소비하려는 성향이 있어 현재의 소득보다 더 큰 소비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한 가계가 일생동안 가정생활주기(연령)에 따라 소득의 기복이 있으나 소비수준은 과거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이 항상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별가계가 각 생활주기별, 혹은 연령에 따라 자신의 직업지위에 따라 적정한 소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안정되고 계획적인 가계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이 많은 시기에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고 소득이 적은 시기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는 가계를 운영할 수 있다.

가계의 소비는 자녀 출산, 자녀의 학교입학·졸업, 자녀의 혼인 등 가족구조와 가족의 형태에 따라 그리고 가족이 접하게 되는 사건들을 통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것이므로 시간적 상황에 따라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가계소비는 소득에 따라 지출되며 소득은 직업지위와 교육수준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변수임을 전제로 하여 각 직업지위에 따른 소비지출을 가구주 연령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각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적정소비선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적정소비선은 개별가계가 자

신의 직업에 따라 가계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역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직업에 따라 각각의 가정생활주기에 자신들 가계의 적정소비선을 도출하여 개별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가계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가구주 연령에 따라 소득과 소비지출, 그리고 평균소비성향을 파악하여 각 연령층 가계의 소비패턴을 알아보고 그들의 생애소득을 산출한 다음 직업별, 각 연령층 가정의 적정소비선을 도출하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소비관련 이론

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분배된다고 가정하고, 저축도 소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며 소득에 관한 이론은 많은 연구에서 가계의 소비행동, 소비패턴, 소비성향을 설명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별, 직업별 적정 소비선을 산출하기 위해 소득가설에 관해 간략하게 고찰하려고 한다.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Keynes, 1936)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한계소비성향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소비증가율은 소득의 증가율보다 작다. 여기에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은 소득이고 주관적 요인은 소비성향이라는 것이다.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Dusenberry, 1949) 개인의 소비는 실제로 타인의 소비와 상호의존성이 있고 다른 사람의 소비를 모방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준거집단의 소비수준에 부응하려고 하므로 소득이 감소하여도 생활수준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는 현재소득보다 과거의 최고소득이나 소비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향상소득가설에서(Friedman, 1957) 소비는 향상소득에 의존하며, 이러한 향상소득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는 이러한 향상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설은(Modigliani & Ando, 1863) 소비자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고 하므로 가계소비는 일생을 통하여 획득이용할 수 있는 총액, 즉 평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소비는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소득이 바로 소비결정함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 생애동안의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게 되므로 생활주기에 따라 소비의 적정선은 다르게 된다.

이상의 몇가지 소득가설에서 소비는 소득에 의존되는 것으로 보아 전 생애에 걸친 소비적정선을 도출하기 위해 항상소득과 생애소득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소득과 소비지출은 상관관계가 매우 커서 소득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득은 가구주의 연령, 직업, 그리고 학력 등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중에서 연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구조 내지 가족구성원의 수와 관련된 변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계소비의 중요변수는 가구주의 연령과 소득이라고 보아 이 두 변수를 중심으로 관련문헌을 고찰하여 가계의 적정소비선을 도출하는데 기초를 삼으려 한다. 소득의 대리변수로서 직업지위에 관해 고찰하고 이 변수를 가지고 적정소비수준을 파악하려고 한다.

1) 연령과 소비지출

소비결정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 가계소비지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생활주기와 관련된 가구주의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직업, 그리고 가족원수를 들고 있다.

국은연구소(1993)가 1993년에 발표한 「한국인의 소비생활」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평균을 100으로 한 경우, 25세 미만 가구주 가계의 소비지출은 80.4, 25~30세는 82이며, 35~40세는 101.8로, 평균에 가깝고, 45~49세는 122, 50~54세에 130으로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 같

은 직수변화는 생활규모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확대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가구당 평균인원수의 변화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소비지출행동을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가계의 생활주기단계를 반영하고 가계가 획득하는 소득과도 관련이 되므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박광희·배미경, 1997 ; 박명희·이승신·배미경, 1996).

배미경은 소비결정 함수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연령은 소비결정함수로서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지출비목별로 보면 연령은 식료품비, 피복비, 개인적 비용(personal care), 교육비, 문화비, 교통통신비, 가구비, 경조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한 바 있다(배미경, 1998).

식료품비는 저소득층의 젊은층에서 더 지출이 많고, 고소득층의 나이 많은 사람들의 가계에서 지출이 많다고 한다. 외식비는 두 집단 모두 젊은층에서 지출이 많았다. 피복비는 저소득층의 연령이 적은층에서 지출이 많고, 교육비는 저소득층의 연령이 많은 가계에서 지출이 더 많다. 교통통신비는 고소득층의 연령이 적은 가계에서 지출이 많고, 가구비는 두집단 모두 연령이 적은 가계에서 많은 지출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생활주기별로 소비지출 분석을 한 노윤주의 보고에 의하면 형성기 즉 20, 30대에는 가장 낮은 소비지출을 보이다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지출이 증가하는데 자녀고등 교육기, 즉 50대에 가장 지출에 많고 60대에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였다(노윤주, 1996).

2) 직업과 소비지출

가계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영향변수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소득이다. 소득은 소비지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이것은 직업지위와 교육과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소득이라는 보고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대리변수로 직업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업이 대리변수로 사용된다는 보고(Linda & Thomas, 1996; 강이주, 1998)가 있으며, 배미경(1998)은 소득수준별로 소비결정 함수를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계층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전체 지출비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식료품비, 외식비, 피복비, 용모유지비에서 두 계층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동시에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직업지위가 높은 집단은 역시 식료품비, 외식비, 용모유지비, 교육비, 레저비, 광열수도비, 의료비, 가구비, 경조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자(2000)는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 양식을 비교분석 하였는데, 1977년부터 1996년 사이의 직업유형별 총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한 결과, 사무직을 100으로 했을 때 전문관리직이 평균 130, 판매서비스직이 70, 자영직이 90, 생산기능직이 70 정도이며, 전문관리직과 자영직의 소비지출규모가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됨을 볼 수 있고, 생산기능직과 판매서비스직의 경우는 1990년 이후 다소 소비지출이 증가되었으나 역시 제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적정소비선

Hanna 등(1989; 1990; 1991, 1995)이 개발한 생애주기 저축프로그램과 Ret-Zero 프로그램은 미국 통계청의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한 가계의 총지출과 다른 가계의 평균 총지출을 비교하여, 자신의 가정에서의 지출이 다른 가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는데 적정소비선(Optimal Consumption Line)의 개념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출 뿐 아니라 적정저축액을 제시하였으며, Hanna(1991)는 적정소비선과 관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Expert System Laboratory에서 다양한 Computer Software를 개발하였다.

Chang, Fan & Hanna(1992)는 전생애기간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크레딧 사용에 대한 연구와 소득의 불확실성(income uncertainty)을 전제로 한 연

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전 생애동안의 적절한 차용과 저축액을 산출하여 개개인 소비자의 재무관리를 최적화(optimal)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Hanna에 의해 제시되어온 적정소비선(Optimal Consumption)은 최적소비선이라고도 하며 합리적인 소비선을 의미한다. Hanna는 그의 많은 연구에서 최적의 소비액수를 소비완만선(Consumption Smoothing)에 근접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적정소비선은 생애주기의 실질 소비액수와 평생소득(Permanent Income)을 동시에 고려한 액수로 산출되며 추정된 두 액수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1996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1988년 두 차례의 시험조사에 이어 1989년 시부지역, 1990년 군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조사를 시행한 것이며 본 조사는 1991년에 제 1회, 1996년에 제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96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계수지조사는 가계부를 조사대상가구에 배포하여 대상가구가 매일 수입과 지출의 내용과 금액을 직접 기입토록 하는 가계부기장방식을 택하여 시행되었다. 이 조사에서 연간소득, 저축, 부채, 가구내구재에 대하여는 조사담당자가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주 또는 가구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하는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가구의 자료만을 이용하였고, 일반적인 가구주의 연령을 고려할 때 성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비근로자가구는 소득의 원천과 소득액수가 불분명하므로 제외하였다.

2. 가구주 연령

본 연구에서의 대상가구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가정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들은 대체로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고,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의 경우는 5%미만이였다.

가구주 연령은 29세 이하, 30대 전기·후기, 40대 전·후기, 50대 전·후기, 60대 전·후기, 65세 이상으로 9단위로 구분하였다. 가구주 연령은 가정생활 주기와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며 34세 이하를 확립기, 35~59세를 확대기, 60세 이상을 축소기로 나누어 가구소비실태를 해석하였다.

3. 직업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직업을 분류함에 있어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연보를 사용하였다 <표 1>.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직업을 <표 1>의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27가지로 분류하였고, 경제활동인구연보는 왼쪽의 7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연보를 기초로 하여 가구주의 직업을 7가지로 분류한 후 이 중 빈도가 적은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직업분류명을 고급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상업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으로 다시 명명하였다.

4.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의 적정소비선을 도출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직업별로 가구주 연령에 따라 소득과 지출 그리고 평균소비성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직업별로 가구주 연령에 따라 적정소비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업별로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가처분소득 그리고 평균소비성향을 산출한다.

<연구문제 2>의 적정소비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생애소득과 향상소득을 산출하고, 향상소득을 선으로 나타낸 향상소득선과 실질소비선의 중간선을 적정소비선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향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을 기초로 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이용하여 적정소비선을 도출하고자 한다.

향상소득가설에 있어서 가계의 생활수준은 일생동

<표 1> 직업분류표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직업 분류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직업 분류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입법공무원 및 고위임직원/법인관리자/종합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교육전문가/기타전문가/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교육전문가/기타전문가
사무직원	일반사무직원/고객봉사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상업과 시장판매근로자	대인 및 보호서비스근로자/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출하목적농 및 어업숙련근로자/자급농업 및 어업근로자
기능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정밀, 수공업,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고정장치 및 관련 조작원/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단순노무직근로자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자료 :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
1998년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안의 가용자원(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지출은 항상소득수준의 일정비율로 고정되는데 그것은 가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생애소득가설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을 현재가치로 산정했을 때, 일생소득의 평균치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적정소비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생애소득과 항상소득을 산출한다.

첫 번째, 생애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먼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나눈 9단계 각각의 월평균가계지출을 구한 다음 모두 더해준다. 이것이 가계의 생애소득이다. 가계소비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Abdel-Ghany 등은 현재소득 대신 주로 총지출을 사용하였고(Abel-Ghany & Foster, 1982; Dardis, Derrick & Lehfed, 1981; Houthanker & Taylor, 1970), 그들은 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총지출이 소득보다 더 안정적인 변수라고 하였다. Liviatan (1961)도 instrumental variable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현재소득 대신 총지출을 사용하였을 때, Engel 곡선 계수의 측정값을 일관성 있게 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다른 소비행동 연구에서도 이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Hassan, 1974; Horton & Hafstrom, 1985).

앞에서 언급한 총가계소득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Y_{PV} = \sum_{t=0}^T Y_t^L / (1+r)^t + \sum_{t=0}^T Y_t^P (1+r)^t$$

t = 현재(t=0)에서 수명기간(T)까지의 기간

r = 이자율

Y_t^L = t시점에서의 기대노동소득

Y_t^P = t시점에서의 기대자산액

Y_{PV} = 일생동안의 총가계소득의 현재가치

이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현재가치의 총가계소득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실제 임금과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이자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다음은 동일한 직업군의 사람을 동일한 임금, 임금상승률을 갖는 동일집단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 때 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의 현재소득과 연령별 소득분을 소득증가분이라고 가정하면, 총생애기간의 동일직업인의 평균소득의 합이 Y_{PV} 가 된다. 이것이 본 논문의 전제이다.

둘째, 직업별로 위에서 구한 생애소득을 <표 2>에 나타나 있는 소득과 소비를 산출하는 총기간으로 나누어 그 직업에 따른 월평균 항상소득을 산출한다. 고급관리직은 가구주 연령이 28세부터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직업군은 20세부터 시작되고, 전문직의 경우 77세까지, 단순노무직의 경우 85세까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에 따라 소득과 소비를 산출하는 전생애기간은 다르게 나타난다. 적정

<표 2> 직업에 따른 소득과 소비 산출기간

(단위 : 개월)

연령 직업	29세 이하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총기간
고급 관리직	24	60	60	60	60	60	60	60	48	492
전문직	120	60	60	60	60	60	60	60	156	696
사무직	120	60	60	60	60	60	60	60	120	660
서비스· 상업직	120	60	60	60	60	60	60	60	84	624
기능직	120	60	60	60	60	60	60	60	72	612
단순 노무직	120	60	60	60	60	60	60	60	252	792

소비선의 기초이론은 전생애에 걸친 가계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며 한 개인이 평생 똑같은 소비선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소득의 경향치를 감안하여 절충된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한 가계가 가정확립기부터 은퇴기까지 실질소득의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항상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할 때 현시점에서의 적정소비선을 도출하는 것은 지나친 과소비와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 의

의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실질소비선과 Hanna(1995)가 제시한 항상소득선을 대비시키고 그것의 중간선으로 적정선을 나타내어 이론과 실질소비가 절충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표 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N=26,030)

변수	집단	N	%	변수	집단	N	%	
가구주의 연령	29세 이하	3,894	15.0	가구주 직업	고급관리직	626	2.4	
	30~34세	4,764	18.3		전문직	5,198	20.0	
	35~39세	4,884	18.6		사무직	3,962	15.2	
	40~44세	3,758	14.4		서비스·상업직	2,240	8.6	
	45~49세	2,990	11.5		기능직	10,376	39.9	
	50~54세	2,520	9.7		단순노무직	3,628	13.9	
	55~59세	1,854	7.1					
	60~64세	1,062	4.1					
65세 이상	344	1.3						
	평균 (세)	40.63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7,344	28.2	
가족원수	2인	4,674	18.0		고졸 이하	11,176	42.9	
	3인	6,732	25.8		대졸 이하	6,666	25.7	
	4인	10,036	38.6		대학원 이상	844	3.2	
	5인	3,172	12.2					
	6인 이상	1,416	5.4					
	평균 (명)	3.63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	8,114	31.2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3,611	13.9		비취업	17,916	68.8	
	100~150만원	6,592	25.3					
	150~200만원	6,273	24.1					
	200~250만원	3,969	15.2					
	250~300만원	2,376	9.2					
	300만원 이상	3,209	12.3					
	평균 (원)	1,933,484						
월평균 가계지출	50만원 미만	1,431	5.5					
	50~100만원	8,255	31.7					
	100~150만원	7,599	29.2					
	150~200만원	4,263	16.4					
	200~250만원	2,077	8.0					
	250~300만원	1,011	3.8					
	300만원 이상	1,394	5.4					
	평균 (원)	1,471,664						

2. 가구주 직업별 연령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일
반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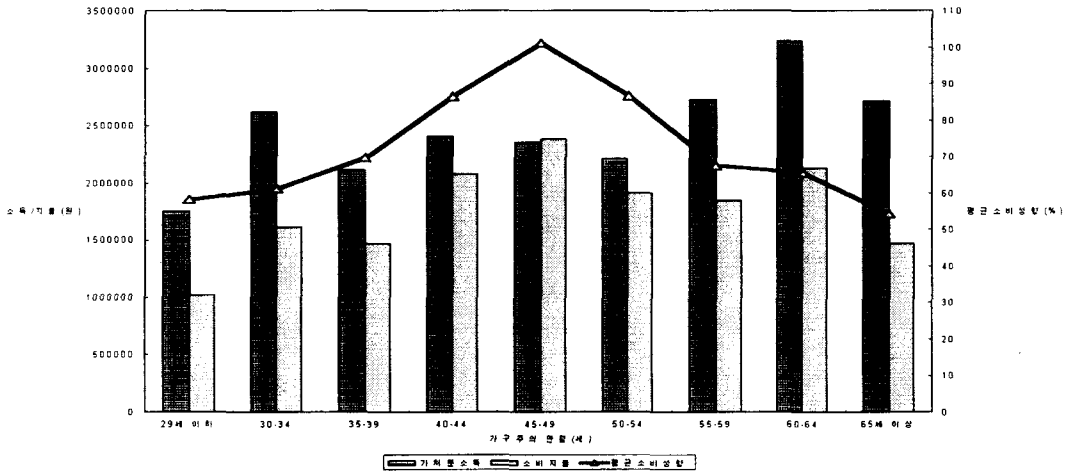
1) 고급관리직

고급관리직의 경우에는 대체로 50, 60대에 소득이 많고 30, 40대에 소득이 적었으며, 소비지출은 반대로 40대에 많고 30대와 60대에는 적다. 평균소비성향은 주로 확대기에 높으며, 축소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 평균소비성향이 40~54세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가계소득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준비를 위한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높은 고급관리직의 경우 자녀의 고교와 대학교육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그림 1-1).

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직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적은 확립기와 축소기 후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고, 확대기 후기부터 축소기 초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3) 사무직

사무직의 경우 소득이 조금씩이나마 20대부터 50까지 증가하다가 50대 후반부터 감소하여 60대 후반에는 크게 감소한다. 소비지출 역시 20대부터 50대까지 계속 증가하는데 50대에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60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50대에 가장 높은데 이는 자녀 대학교육 및 혼인비용으로 인한 현



〈그림 1-1〉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평균소비성향 - 고급관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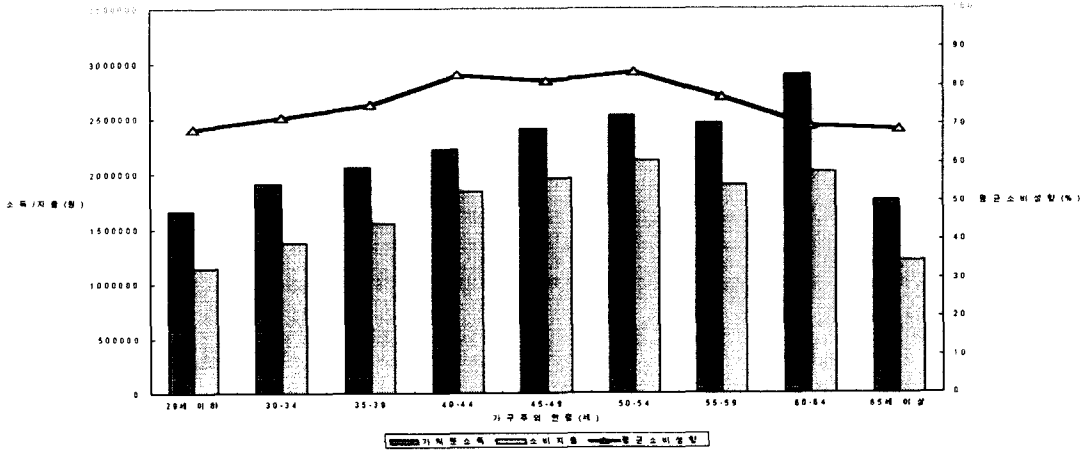
2) 전문직

가처분소득이 20대부터 6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60대 후반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며, 중년기 이후에 경력과 연륜이 쌓여진 후에 소득이 더 많아진다. 소비지출 역시 같은 패턴을 나타내는데 축소기 이전의 단계에서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의 과다한 부담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점차로 증가하다가 축소기 이후에는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고급관리직·전문직과 같이 소득수준이 높고, 안정적이며 급여기간이 긴 경우 노후의 재정관리가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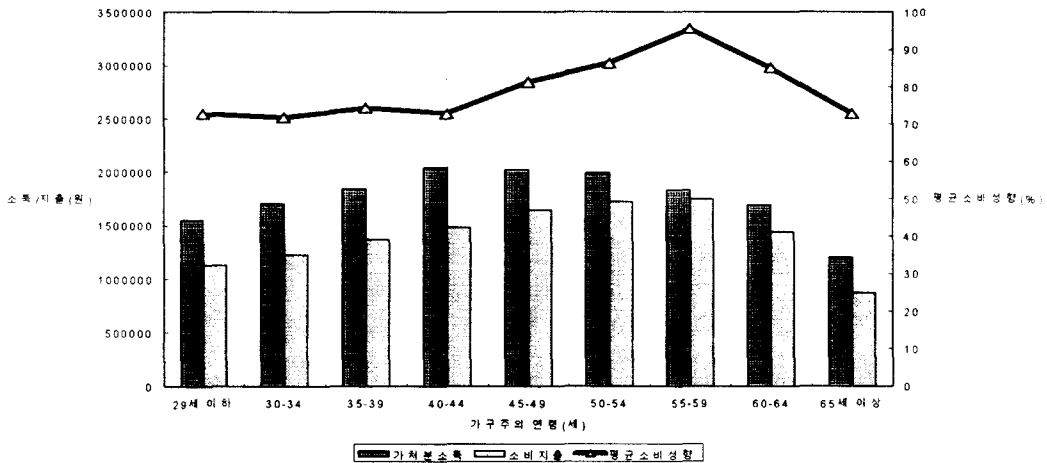
상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3).

4) 서비스·상업직

서비스·상업직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직업군에 비해 소득이 낮은 편이며 20대부터 40대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50대에 증가한다. 그리고 60대에 급격히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직업지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은 20대부터 50대까지 큰 변동없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평균소비성향이 60



〈그림 1-2〉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평균소비성향 - 전문직



〈그림 1-3〉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평균소비성향 - 사무직

대에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소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소득이 감소한 결과로 본다. 이 직업군의 경우 고정적인 지출에 비해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진다고 본다(그림 1-4).

5) 기능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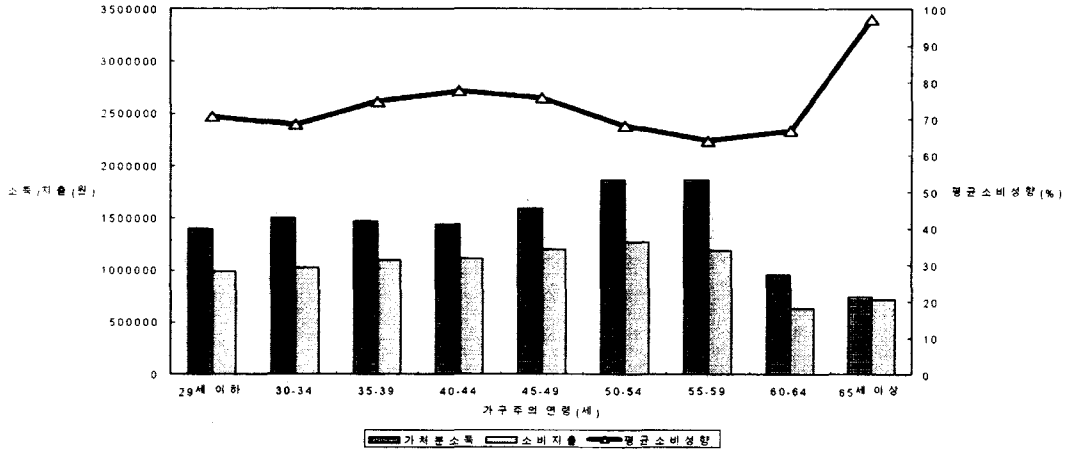
기능직의 경우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은 확대기에 주로 많으며, 확립기와 축소기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기능직의 경우도 축소기에 평균소비성

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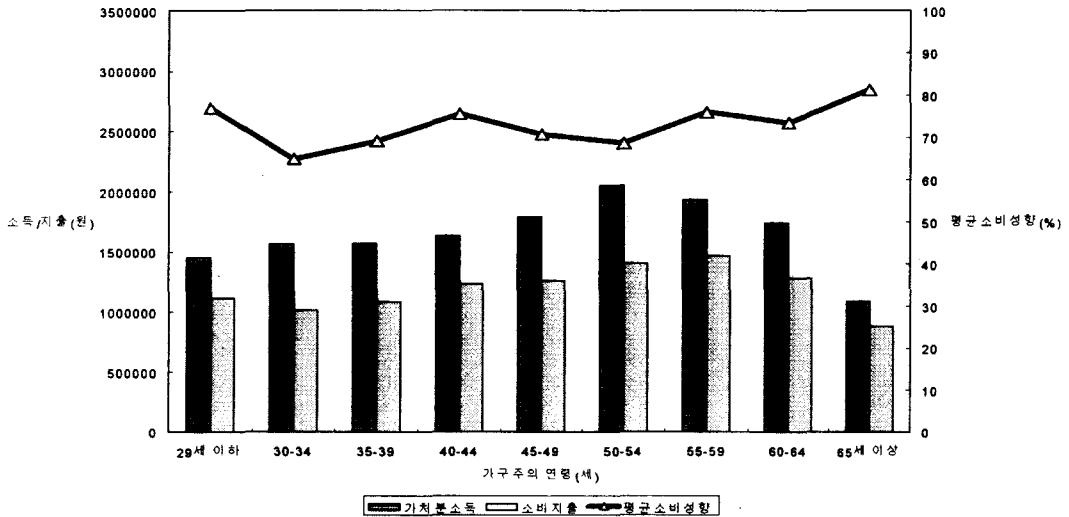
기능직은 가처분소득이 축소기 초기까지도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능직의 경우 일정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 단순노무직

가처분소득이 전체적으로 가장 낮고, 그 변동의 폭 또한 가장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노무직은 나



〈그림 1-4〉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평균소비성향 - 서비스·상업직



〈그림 1-5〉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평균소비성향 - 기능직

이가 들어 몸이 노쇠해지면 젊었을 때만큼의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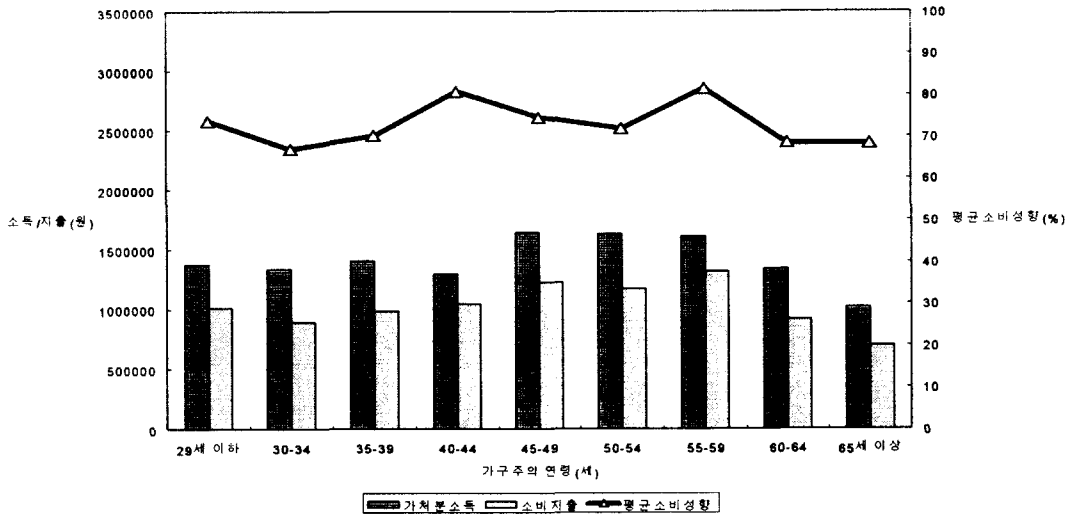
3. 적정소비선

1) 고급관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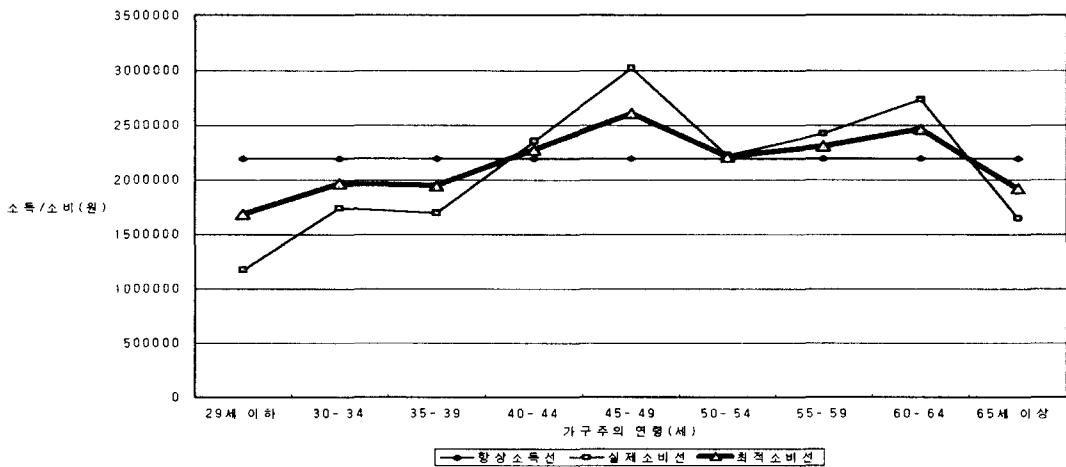
각 단계별 소득을 전부 더한 생애소득은 약 10억

8천만원이고, 이것을 492개월(표 2 참조)로 나눈 향상소득은 약 220만원이다. 이 수치는 고급관리직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평균적으로 취득하는 월평균소득이다. 이는 6개의 직업군 중 가장 높은 값이다.

실질소비와의 차액을 살펴보면, 적정소비선이 실질소비선보다 높은 29세 이하~39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기간 중에는 차용을 통하여 소비를 약 5,380만



〈그림 1-6〉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평균소비성향 - 단순노무직



〈그림 2-1〉 적정소비선 - 고급관리직

원정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정소비보다 실질소비가 높게 나타난 40~64세에는 약 5,380만원을 저축하여 노년기의 소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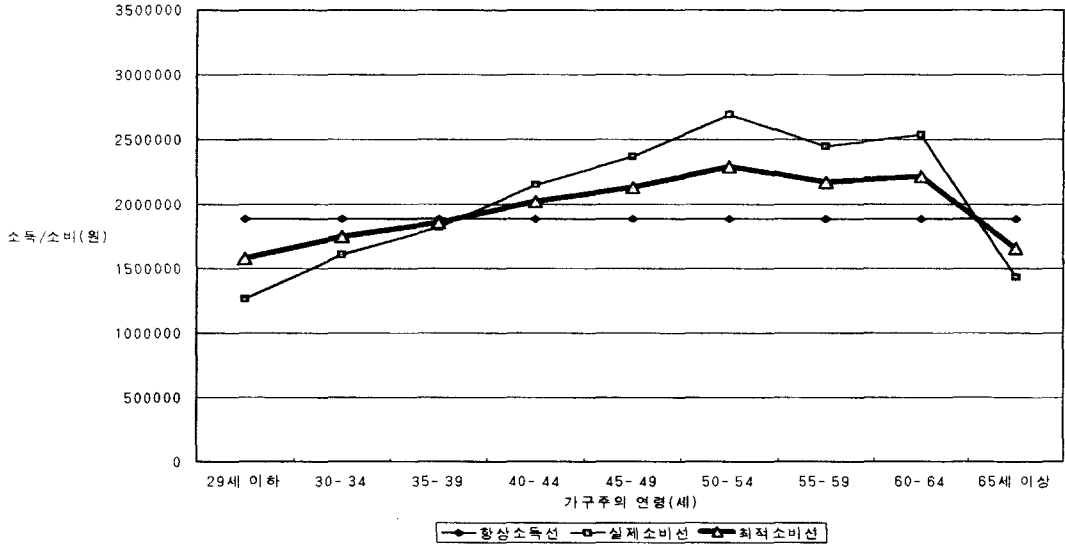
2) 전문직

이 직업군의 생애소득은 약 13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항상소득은 약 189만원이며, 6개의 직업군

중 두 번째로 높은 값이다.

각 단계별 적정소비는 (그림 2-2)와 같다.

이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전 생애의 총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9세이하~39세와 65세 이상의 기간동안에는 차용을 통해 약 8,280만원의 소비를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소비가 적정소비를 넘어서는 40~64세의 기간동안에는 약



〈그림 2-2〉 적정소비선 - 전문직

8,280만원을 저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립기와 축소기 동안의 소비를 확대기에 이를 갚아 나간다면 총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사무직

사무직의 경우 생애소득은 약 10억 6천만원이었고, 항상소득은 약 1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적정소비액은 그림 2-3과 같다.

이들 적정소비액과 실제소비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29세 이하~39세 그리고 65세 이상에는 약 6,650만원의 소비를 더해도 된다고 볼 수 있고 확대기 중기부터 축소기 전기까지 즉 40~64세의 기간동안 약 6,650만원만큼의 저축을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4) 서비스·상업직

이 집단의 생애소득은 약 7억원이고, 이를 기초로 항상소득은 약 113만원으로 나타났다.

적정소비는 그림 2-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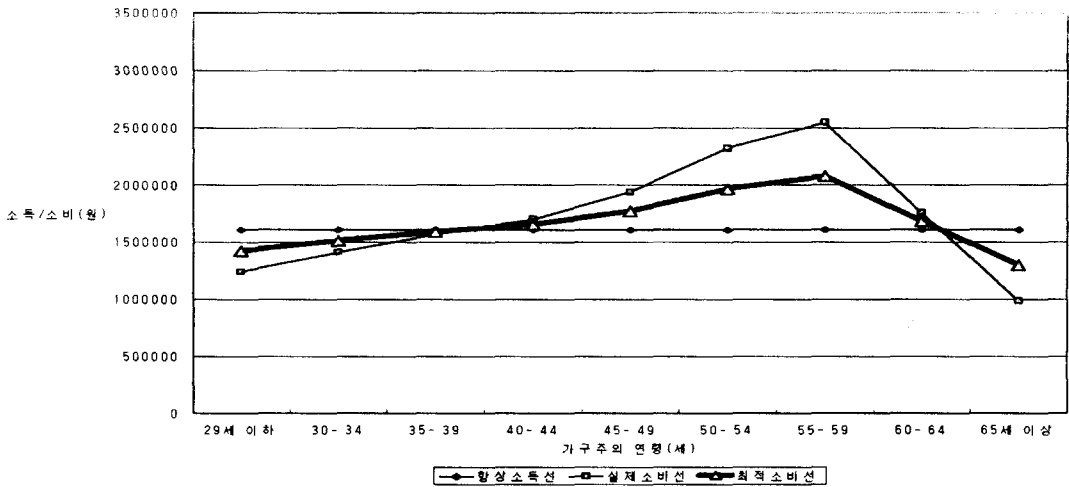
가구주의 연령별로 적정소비선과의 차액은 우선 29세이하~34세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 2,910만원의 차용을 통해 더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35~59세까지는 약 2,910만원의 저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서비스·상업직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축소기 후기에 97%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노년기에 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확립기부터 가정생활설계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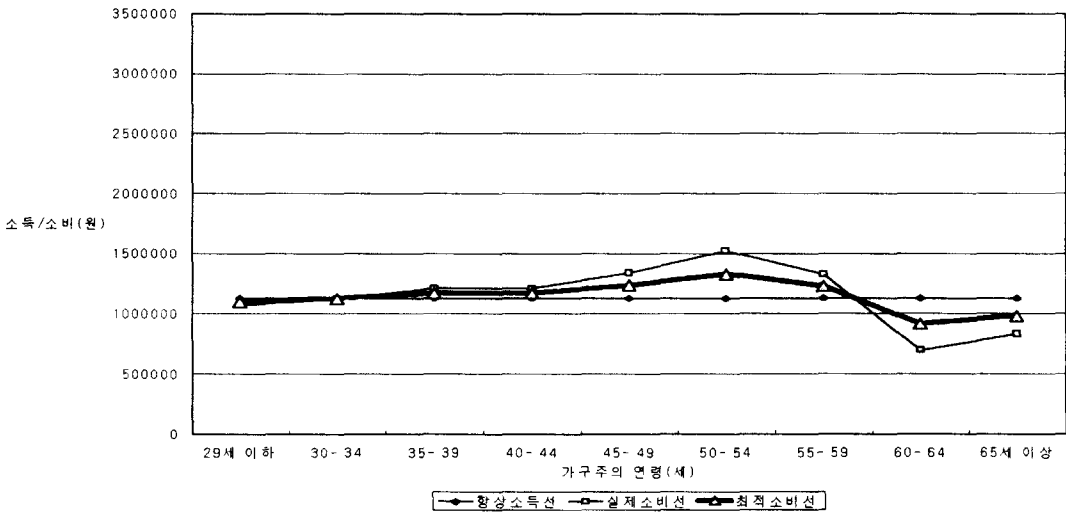
5) 기능직

기능직의 경우 생애소득은 약 8억원이고, 이에 따른 항상소득은 약 131만원으로 나타났다. 항상소득과 실제지출을 근거로 한 적정소비는 〈그림 2-5〉와 같다.

이 직업군 역시 차용과 저축을 통해 전 생애의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우선 29세 이하~39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기간에는 약 2,780만원을 차용하고, 40~64세의 기간 동안에는 약 2,780만원의 저



〈그림 2-3〉 적정소비선 - 사무직



〈그림 2-4〉 적정소비선 - 서비스·상업직

축을 하는 것으로 소비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대책을 위해 확대기에 좀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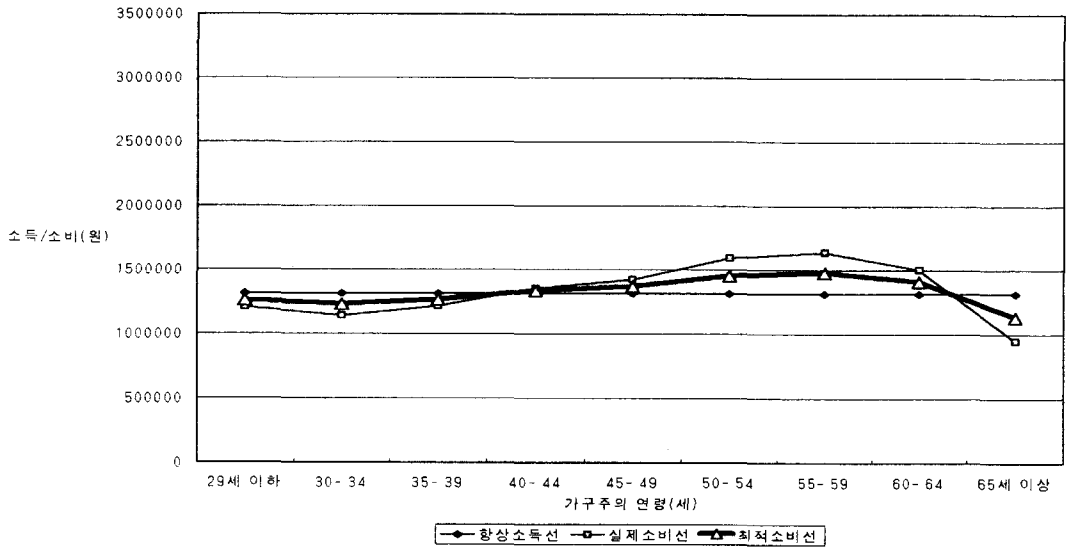
6)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직의 경우 전 생애를 통해 획득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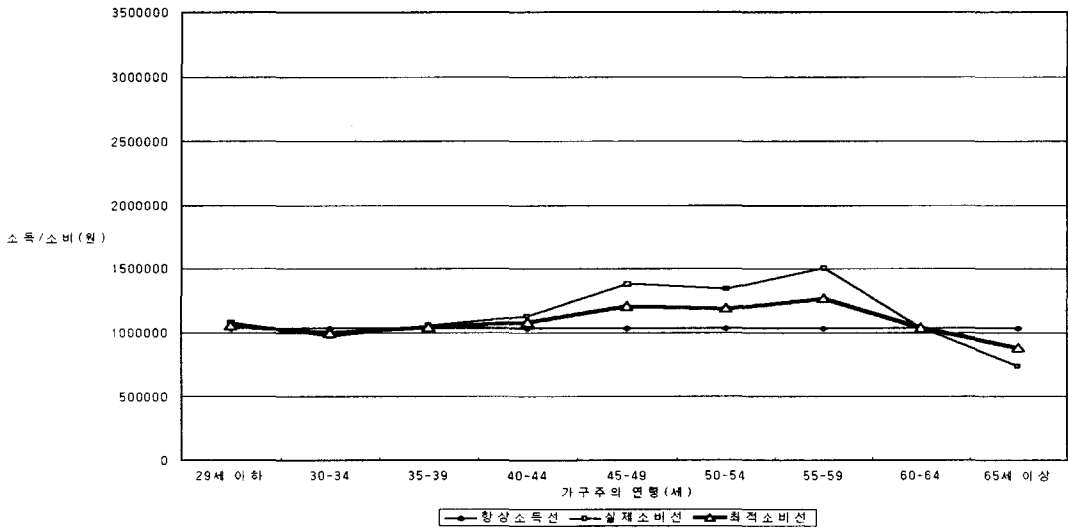
는 소득은 약 8억 2천만원이며, 항상소득은 약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항상소득과 실제지출을 기초로 제시될 수 있는 적정소비액은 〈그림 2-6〉과 같다.

생애기간의 초반부에는 실질소비와 적정소비가 비교적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 차액이 작긴 하지만



〈그림 2-5〉 적정소비선 - 기능직



〈그림 2-6〉 적정소비선 - 단순노무직

적정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30~34세, 65세 이상에는 약 4,000만원정도의 차용을 통한 소비를 더 해주어야 하고, 29세 이하와 35~64세에는 초과된 약 4,000만원 만큼의 소비를 줄여 저축을 해야한다.

특히 65세 이상일 때 실제지출과의 차액은 전 직업군과 전 연령을 통해 볼 때 가장 많았다. 소비욕구는 일정하거나 증가하게 되지만 항상소득이 6개 직업군 중 가장 적으므로,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용을 거둘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직업에 따른 적정소비선 비교

이상에서 6가지 직업군에 대해 적정소비선을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확립기와 축소기에는 적정소비선보다 더 적게 소비하고, 확대기에는 적정소비선보다 월등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를 할 때 그 당시의 소득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확립기와 축소기에는 적정소비선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음에도 차용을 하지 않아 부족한 소비생활을 하게 되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확대기에는 축소기를 대비하지 않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축소기에 적정소비만큼의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적정소비선만큼의 소비는 확립기에는 부채를 이용하고 축소기에는 확대기에 저축해 둔 자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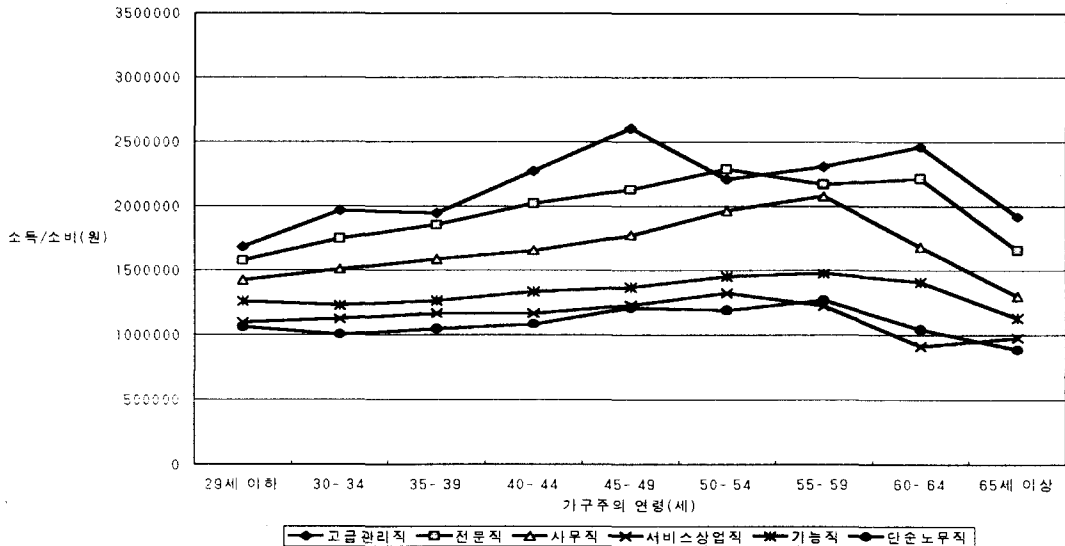
확립기에 적정소비선 수준의 소비를 위해서는 부채이용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Fisher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계의 부채이용의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였다. 기간간 효용극대화 이론(Fisher, 1930)에 의하면 소비자는 기간간의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간간에 자원을 배분하게 되며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소득이 소비수준에 비해 낮을 경우, 미래 소득을 이용한 차용을 통해 현재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즉 가계의 부채이용은 가계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Hanna(1995) 역시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한 프로그램에서 가정생활주기 초기에 있어서는 미래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때 차용이 최적선택이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한 최적선택이야말로 가계의 효용 및 만족을 극대화시킨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6가지 직업군의 적정소비선을 비교해보면 <그림 2-7>과 같다.

6개의 직업군 모두 45~59세까지는 자녀를 위한 비용의 증가로 적정소비선이 점차 증가하고, 은퇴기를 대비하는 축소기에 들어서면서 적정소비선이 낮아진다. 고급관리직의 경우가 가장 높은 적정소비선을 그리고 단순노무직의 경우 가장 낮은 적정소비선



<그림 2-7> 직업에 따른 적정소비선

을 보이고 있다. 또한 6가지 직업군 중에서 사무직이 우리나라의 직업별에 따른 도시 근로자가계의 평균적인 적정소비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무직은 고급관리직과 전문직에 비해 낮고 비교적 고정된 소득수준을 유지하며, 축소기의 소득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노후준비를 위해 축소기의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반면 고급관리직과 전문직의 적정소비선을 보면, 6개의 직업군 중 소비수준이 높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 60세 이후에 소비선이 급격히 감소한다.

서비스·상업직, 기능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적정소비선 역시 낮으며 소비선의 변동폭이 고급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적은 편이다. 특히 서비스·상업직과 기능직의 적정소비선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안정적이고, 급여기간이 짧은 기능직의 경우 적정소비선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일반가계는 제한된 소득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데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지출요구에 맞게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가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각 생활주기별로 적정소비선의 도출이 요구된다고 보아 Hanna가 제안한 적정소비선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적정소비선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직업별로 가구주 연령에 따른 평균소비성향과 적정소비선을 도출하였다.

직업별로 가구주 연령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적정소비선은 다음과 같다. 고급관리직의 경우가 가장 높은 적정소비선을, 그리고 단순노무직의 경우 가장 낮은 적정소비선을 보이고 있다. 6가지 직업군 중 사무직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적정소비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급관리직과 전문직의 적정소비선을 보면, 6개의 직업군 중 소비수준이 높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 소비선이 60세 이후에 감소한다. 서비스·상업직, 기

능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산출한 적정소비선 역시 낮으며 소비선의 변동폭이 고급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적은 편이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직업별로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평균소비성향의 일반적 성향은 대체로 확대기에 가장 높고, 축소기에 가장 낮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확대기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여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소기의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지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립기와 축소기는 실질소비가 적정소비보다 낮게 나타나고, 확대기는 적정소비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년기에 자녀 교육비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고 여기에 자녀의 혼인비용의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의 지출이 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에 있어 사교육비의 지출은 생활비의 22~26%에 달해(임정빈 외, 1994), 다른 생활항목을 압박하고 합리적인 생활설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확대후기와 축소기에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녀의 혼인비용에 따른 부담이 커져서 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하는 사람들이 주택마련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도 중년기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부모 자신의 노후대비에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부모세대나 자녀세대에게 자립성과 충실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에 따른 적정소비선을 보면 6가지 직업군 모두 소비선이 점차 증가하면서 축소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고급관리직, 전문직의 경우 소비선이 낮아지는 연령대가 60~64세이지만 나머지 4가지 직업군은 이보다 빠른 50~54세 혹은 55~59세에 소비선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양이 근로자의 소득변화로 그 결

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즉,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임금이 낮고, 보상이 실현될 때는 임금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인적자본 투자의 효과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고급관리직과 전문직의 경우 투자의 양이 큰 직업으로 특히 소득증가 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소득을 기준으로 도출한 적정소비선 역시 60~64세까지의 경사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구주 연령별로 그리고 직업별로 소득, 소비지출, 적정소비선이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일반 가계가 재정계획을 하고 가계관리를 함에 있어 하나의 평가기준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가정생활주기에 있는 가정이 직업별로 자신의 가계관리가 우리 나라 가정의 평균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검토하여 가계 재정관리를 수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생활계획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가계재정안정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이 후속연구는 가족수, 교육수준, 지역별 등의 변수에 따른 적정소비선을 도출하여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의 과소비와 위축된 가계운영이 아닌 적절한 가계운영의 지침이 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은연구소(1993). 「한국인의 소비생활」, 국민경제연구소, 31.
- 김기욱·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 연구* 1(2), 15~31.
- 김영숙(1990). 한국 가정의 가계 소비유형 분석, *소비생활연구* 5, 31~50.
- 노윤주(1996).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희·배미경(1997). 도시가계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415~427.
-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6). 한국 도시근로자 가계의 과소비와 영향변수, *대한가정학회지* 34(5), 209~222.
- 박선미·김영숙(1992). 한국 경제개발 계획년도별 가계소비지출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18.
- 배미경(199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함수, *소비자학 연구* 9(4), 83~100.
- 양세정(1991).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7.
- 임정빈·고보선(1995). 도시 신혼기 가계의 가정경제 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2), 1~18.
- 주인숙·양세정(1997). 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77~290.
- 한국노동연구원(1991).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경제 분석, 57~68.
- 홍향숙·이기춘(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14.
- 최현자(2000). 가구주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 양식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67~183.
-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Chang, Y. R., Fan, X. J & Hanna, S.(1992). Relative Risk Aversion and Optimal Credit with Uncertain Incom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 Duesenberry, J. s.(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Fan, X. J., Chang, Y. R. & Hanna, S.(1993). Real income growth and optimal credit. *Financial Services Review*. 3(1), 45~58.
- Hanna, S.(1989). Optimal Life Cycle Savings. *Proceeding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4~16.

Hanna, S., Fan, X. J. & Chang, Y. R.(1995). Optimal

Life Cycle Saving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Vol 6, 1~15.